

## 정수의 이야기

정수는 충실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의 가정에서 자랐다. 그에게는 사랑 많으신 부모가 있으며 그는 누나인 선주와 특히 친하다.

정수는 복음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회복에 대한 간증이 있다. 그는 성격이 명랑하고 활발한 것으로 유명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그의 쾌활함은 슬픔으로 바뀌었고, 점점 더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정수에게는 비밀이 한 가지 있는데 그는 그것에 대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정수는 자신이 기억하는 한,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끌렸다. 여러 해 동안 그는 이러한 감정을 무시하거나 그런 감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지내려고 노력했다. 집에서는 이런 주제로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이 금지된 대화라고 느꼈다. 때로 친구들은 동성애자들에 대해 신랄한 발언을 했다. 교회의 교사들과 지도자들이 했던 말 중에서 기억나는 것은 동성애가 심각한 죄라는 것뿐이다.

정수는 선교 사업을 나가기 전에 남성에게 끌리는 마음을 없애 주시기를 하나님께 되풀이해서 간구했다. 그는 선교 사업을 하면 그런 감정이 바뀔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러나 정수는 선교 사업을 마친 후로도 남성에게 끌리는 마음은 계속되었다. 정수는 절실하게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지만 두려움 때문에 침묵을 지켰다.

선주는 정수가 가족과 정서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의 눈에서 고통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정수를 위해, 또 그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알기 위해 기도했다.

오늘 아침 선주는 정수에게 함께 산책할 수 있냐고 물었다. 그는 마지못해 그러겠다고 했다. 그들은 걸으면서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눴다. 선주는 정수를 웃게 만들기도 했다. 마침내 선주가 말했다. “정수야,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 네 눈에서 그게 보여. 제발 나한테 말해 줘. 내가 너무 걱정되서 그래.”

정수는 한동안 우두커니 서 있었다. 눈물이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마침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정의 붓물이 터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그가 말했다. “누나, 난 게이야. 내가 기억하는 한 쪽 게이였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 아빠가 알게 되면 뭐라고 하실지 무서워 죽겠어. 나머지 가족들은 나를 부끄러워하겠지? 내 친구들은 내가 게이라는 것을 알아도 여전히 나와 어울리고 싶어 할까? 감독님께 말씀드리면 교회에서 내 회원 자격은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떻게 행복해 질 수 있을지 그리고 가정을 꾸리게 될 수나 있을지 전혀 그러지지가 않아.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아.”

정수는 고개를 숙이고 땅을 응시했다. 그가 한참이나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말했다. “누나, 실망시켰다면 미안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 줘. 난 너무 막막하고 혼란스러워.”

### 토론 질문

1. 정수의 경험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가족이나 친한 친구 또는 교회 지도자와 동성에게 끌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왜 어려운가?
2. 여러분이 선주라면 어떤 기분이 들었겠는가? 선주는 이해심과 동정심을 지니고 대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3. 동성에게 끌리는 것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선주와 정수 모두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가르침이 때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4. 어떻게 하면 정수와 선주가 동성에게 끌리는 것을 영원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을까?
5. 정수는 어디에서 더 많은 인도와 격려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